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 구현

농진청, 올해 업무계획 발표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기반 조성 등 5대 과제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4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태웅 청장은 올해 과제로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농촌 소멸화 대응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기반 조성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의 개발·확산 ▲농산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술 보급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한국형(K)-농업기술의 전파·확산 등을 제시했다.

▲농촌 소멸화 대응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기반 조성
유관부처·기관 등과 협력해 청년 농업인의 기술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창업 보육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취농과 창업 준비부터 지역 정착,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종합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기반을 조성한다.

지역 소멸 우려가 높은 지역에 맞춤형 지역특화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지역 특산물과 식문화와 융합한 지역 주도형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를 강화한다.

한편,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서비스 전문가(치유농업사)를 육성한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의 개발·확산
'황금알', '오프리' 등 용도에 맞는 기능성 및 품종과 부가치 향상을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농업의 편리성·생산성·품질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을 개발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한다.

양·수분 정밀제어 기술, 영상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자동 진단기술 등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기술을 노지로 확대한다.

노지재배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드론·위성·자율주행로봇 등을 활용한 노지 디지털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농촌 소멸화 대응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기반 조성
유관부처·기관 등과 협력해 청년 농업인의 기술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창업 보육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취농과 창업 준비부터 지역 정착,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종합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기반을 조성한다.

지역 소멸 우려가 높은 지역에 맞춤형 지역특화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지역 특산물과 식문화와 융합한 지역 주도형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를 강화한다.

한편,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서비스 전문가(치유농업사)를 육성한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의 개발·확산
'황금알', '오프리' 등 용도에 맞는 기능성 및 품종과 부가치 향상을



농촌진흥청은 4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한 보리 품종을 개발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자 맞춤형 국산 벼 품종을 확대 재배함으로써 외래품종 쌀을 대체해 식량 자급률을 끌어 올린 다.

정수배수 기술과 논이용 작부체계 기술을 개발해 논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

식량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농업

기계획에 최적화된 품종을 개발한다.

또한, '승용형 양파 정식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발농업기계 개발을 강화한다.

▲농산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술 보급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농기계 접근 정보와 사고감지 알람 시스템

신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사업(76개소)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농자재 유통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합열원 이용 모형의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농업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장 맞춤형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29시군→40)한다.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한국형(K)-농업기술의 전파·확산
선진 기술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 농업연구연합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과 디지털 농업 협력을 추진한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K)-농업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막 벼 재배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재배면적을 대규모로 확대한 3차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와 현지 기후에 적용할 수 있는 벼 품종 개발을 지원해 한국형(K)-농업기술 개발 성과를 세계적으로 확산한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고령화와 인구 정체로 농촌 소멸이 우려되고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농업은 과학기술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화폐 성공적 도입·운영에 힘 모아

실험, 한국조폐공사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운영' 협약 전담조직인 '특화금융사업반' 신설 지역화폐 사업 체계적 추진

실험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실험)가 4일 한국조폐공사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했다.

실험과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공동 개발해 선보인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878개 실험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급과 수령을 위한 접점으로,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지원하게 된다.

본 협약에 앞서 실험은 지난 1일 디지털금융본부 내 지역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조직인 '특화금융사업반'을 신설한 바 있다.

주요 업무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촉진 및 소비 진작 ▲금융 VAN(카드 결제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 및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보이며 지역 밀착형 금융 생태계를 조성, 지역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평생 어부바'의 가치를 전할 계획이다.

실험중앙회 정인철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과 지역경제를 든든히 어부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며 "실험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기부-지자체 협업 '스마트슈퍼' 키운다

26일까지 육성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점주, 매출 향상·고객, 비대면 소비 가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오는 26일까지 동네슈퍼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5개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스마트슈퍼는 점주가 퇴근 후에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도시지역이나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동네슈퍼가 없어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8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하는데 동네슈퍼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업종인 점을 고

려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상권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가 먼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슈퍼에 필요한 기술·장비 도입 비용의 일부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데 중기부는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200만 원 이상을 매칭 지원하게 된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스마트슈퍼는 점주의 소득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부합하는 등 고객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슈퍼 사업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월부터 임업경영체 등록업무 활성화를 위해 조사원(기간제근로자)을 추가 선발해, 경영체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후 배치해 등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부청에서는 작년보다 원거리 접수로 인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의 하나로 임업경영체 업무영역을 담당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로 확대하는 등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서부청은 현재 4,300여 건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으며, 등록 관련사항은 임업경영체사무실(063-620-4655-9) 및 국유림관리소 경영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에 앞장설 것"이라며 임업경영체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전 전북본부 4일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재가 어르신들을 위한 6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마음택배'를 전달했다.

저소득 재가 어르신 위한 '사랑의 마음택배'

한전 전북본부, 설 명절 맞아

한전 전북본부는 4일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재가 어르신들을 위한 6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마음택배'를 전달했다.

이날 한전 전북본부 사회봉사단은 덕진노인복지관과 꽃발정이복지관을 통해 추천받은 저소득 재가 어르신 등 60가구에 과일, 꽃감, 꿀비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전달된 선물세트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러브펀드' 기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봉사단이 전통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전달했다.

이경섭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마음에 명절을 맞아 작게나마 힘이 되고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밝고 따뜻한 희망에너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보에 2억5000만원 출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전북관내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북신보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에 2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출연은 지난 1월 전북도와 협약한 '전라북도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지원 특례보증 대출' 취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됐으며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총 50억원의 대출을 1%미만의 저금리로 조기 지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02년부터 매년 전북지역보증재단에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동성지원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연한 금액은 총 128억원에 달한다. /김윤상 기자



장기요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은행으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올해 제1차 혁신시제품 도내 1개 지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21년도 제1차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선정된 40개 업체 중 도내 1개 기업의 제품을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자체 예산으로 구매 후 공공기관에서 사용, 그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코리아이엔지의 '고감쇠 고무용 활동형 MK-2230 제진패드'는 고감쇠 고무를 이용한 제진패드를 국내 최초 개발 검증·완료된 제품으로 내진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물의 구조물의 경간에 간주형태로 설치해 지진발생 시 건축구조물의 붕괴방지 및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등 공공행정기관 및 기타 모든 건축 구조물의 내진보강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주동부실험, 효자4동에 설맞이 이웃사랑 물품 전달

전주동부실험(이사장 인옥순)은 지난 4일 효자4동 저소득계층을 위한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에 10kg 백미 30포, 김30박스, 미역 30개(155만 원 상당)를 이웃돕기 물품으로 전달했다. 기탁받은 쌀은 이웃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인옥순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공헌활동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철웅 동장은 "매년 잊지 않으시고 성금 및 물품 등을 기탁해주시는 효자4동 기부천사들의 손길에 주민들은 활짝 웃을 수 있고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동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